



금속산업 노·사 2026년 신별 중앙교섭 시작

14일 중앙교섭 상견례...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대정부 요구안 등 제안

금속노조가 2026년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임금·단체협약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는 4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6년 1차 중앙교섭을 상견례로 열었다.



교섭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14기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는 인사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근형 회장은 “작년 사용자협의회 내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다행히 잘 정리되어 올해도 68개 사업장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올해 금속노조의 요구가 많아 보이지는 않으나 묵직한 사안들이고, 완성차 대공장들에서 같이 고민하거나 오히려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부담도 되지만, 매년 해왔듯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올해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노동조합이라고 운을 떼 뒤 “초기업교섭도 사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올해로 중앙교섭이 24년째이고, 중앙교섭은 금속노·사간의 유일한 초기업 교섭들”이라며, “현재 중앙교섭에서 맺은 금속산별협약의 적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교섭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보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교섭 합의호력을 산업과 업종, 지역으로 확장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중앙교섭 참여 노사에 정부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 참여권을 줄 것 등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함께 건의하자고 발언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교섭에서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하자며, 초기업교섭이야말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유력한 근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12일 사용자협의회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등 2026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사는 교섭원칙을 확인하고, 예년처럼 매주 화요일 중앙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 협의회 주관으로 4월21일 노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